

# 19세기 새로운 장식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 G.젼퍼의 피복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unding of a New View Point on Architectural Ornaments In 19th Century

- Focused on the G.Semper's [Bekleidungstheorie] -

조영배\* / Cho, Young-Bae

윤도근\*\* / Yoon, Do-Keun

## Abstract

In the Western Civilization you can clearly see the change in the architectural system. In the 19th Century, many of architectural style resurrected in the appearance of style revival. And each of the Style's appropriateness and exactness were very complicatedly discussed. After the middle of 19th Century a series of morality movement which showed an expectation for a historical revival started to show declining atmosphere. To architects at the periods more universal formation seeking and new surpassing style pursuing logic has exacted which care from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During this period a question were brought up about architecture ornamental rightness and appropriateness. As each of the architects had a saying about the ornament was recognized as important part of architect. On this bases this study's purpose is finding out whst is the meaning and content of G.Semper's "Bekleidungstheorie"

키워드 : 피복론(Bekleidungstheorie), 장식(Ornamen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초 가장 혹독한 건축가이자 비평가였던 아돌프 루스(Adolf Loos, 1870-1933)는 장식은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그러한 아돌프 루스의 선언이후 건축계에서 장식은 기능과 유리된 부차적인 존재로서 실질적인 건축구성에 아무런 도움을 못주는 무익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초기 국제주의 건축이 견지한 즉물성과 경제적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강조와 함께 반장식주의가 건축계의 주류로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장식과 관련된 찬반의 논란은 그리 간단치 않은 철학적, 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장식은 예술사나 미학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인류문화 초창기부터 존재해 왔던 항시성으로 인해 근대에 대한 모델로 제시된 다른 개념들보다 훨씬 친숙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보아도 장식은 고전주의 미학, 자연미학, 양식문제, 낭만주의 미학등 19세기 중반이후 부터 후반을 관류할

수 있는 중요한 미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었던 운동들인 리얼리즘(Realism), 자연주의(Naturalism), 인상주의(Impressionism), 후기인상주의(Post-Impressionism), 프리-라파엘리트운동(Pre-Raphaelites), 상징주의(Symbolism), 표현주의(Expressionism), 아르누보(Art Nouveau), 추상예술(Abstract Art)과 같은 운동들에 있어서 장식은 중심적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서양에서 아르누보 계열의 건축장식이 등장하던 시기에 건축에서의 장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표피적 조작의 수준을 넘어 심오한 예술사적 의미를 갖는 정신 운동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 건축계에서 본격적인 장식논쟁이 있었던 19세기 중엽, 장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젼퍼의 피복론을 살펴봄으로서 장식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세기에 있었던 다양한 건축이론 가운데서 젼퍼(G. Semper)의 "Der stil" <이하 様式><sup>1)</sup>에 나타나고 있는 被服論의 성

\* 정회원, 서라벌대학 건축학과 전임강사

\*\* 명예회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1)Gottfried Semper, Der Stil in den technischen und tektonischen Kűsten order Praktische Aesthetik, 2nd revised edition, F. Bruckmann Verlag, Munich, 1978. 본 논문에서는: On the Methology of History of

격을 규정함으로써 19세기 장식운동을 살펴보는 데 있다. 쟈퍼의 장식론은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장식은 건축의 형태 결정과 무관한 2차적 요소라는 인식을 배제하고 장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근원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장식관을 제시하고 있다. 쟈퍼의 장식에 관한 견해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 동 시대에 활약했던 활약했던 휴브츠(Heinrich Hubsch, 1795-1863)의 장식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쟈퍼의 피복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 2. 19세기 장식론의 시대적 배경

### 2.1. 역사주의적 상황과 장식

19세기는 다양한 건축사조의 실험 무대였다. 어느 한 사조도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한 채 과거 양식에 대한 개념적 해독에 몰두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예술사적 상황은 역사주의적 시각의 토대를 마련한 하인리히 뵐플린(Heinrich Wölfflin, 1864-1945)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뵐플린은 예술의 발전에서 우연성과 임의성을 배제하고 엄밀한 법칙성과 내적 필연성을 찾으려 시도하였는데 결국 예술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양식들의 연속적인 교체속에서 찾아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2)</sup> 이와같은 뵐플린의 시각은 후에 페브스너(N. Pevsner, 1902-1983)의 시대정신(Zeitgeist)의 개념등으로 이어져 예술에 있어 결정론적 시각을 제공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결국 이 시기에 팽배해 있던 역사주의는 건축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형태의 발전보다 역사의 관찰과 이용을 통한 역사적 어휘의 사용을 그 시대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었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동시대의 휴브츠는 역사적인 고전 양식의 관찰과 연구를 통하여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양식을 비판하고, 그러한 양식을 대신할 양식을 과거의 양식중에서 찾아낸다.

휴브츠의 생각은 동시대의 양식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양식의 원형을 근간으로 삼아야 하지만 지역적 기후, 이용 가능한 건축재료, 시대적 요구등과 같은 건축 형성조건들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와 완벽하게 일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만 양식사적 의미로 볼 때 고대 그리스 양식과 동등하고 현실적인 조건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식적 요소로서 반원 아치(Arch)의 사용을 주장한다.<sup>3)</sup> 또한 휴브츠 자신도 이러한 반원아치를 자신의 실제 설계에 제안하여 실천하였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정체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으로 시도되던 낭만주의 운동이나 이상주의 자연모델운동, 과학정신

운동도 사실은 이러한 정체된 역사주의로부터 새로운 건축을 시도해 보려는 움직임중의 하나였다.<sup>4)</sup> 이 시기에 있어 장식은 그 개념에 있어 상대주의, 구조성 문제, 경험주의 등과 같은 몇가지 다른 개념들과 연관되어 새로운 모델을 찾는 시기였으며 역시 이 경우들에 있어서도 건축이 구현할 최종 목표는 건축의 가치체계와 표현체계의 새로운 균형을 통한 적절한 건축 어휘의 창출이었다.

### 2.2. 고고학적 발굴과 다색장식

이 당시 불기 시작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유적 발굴운동은 서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과거의 유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19세기의 유적 발굴운동이 있기 전까지 서구사회가 유적에 대해 갖고 있었던 태도는 매우 몽매한 수준이었다.<sup>5)</sup> 이러한 상황속에서 건축도 역사적 선례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유적을 통한 실증적 검증보다는 책을 통한 고전예술에 대한 개념적 해독 위주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적 해독위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19세기에 들어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려는 일단의 건축가들은 건물의 외관을 다양한 색상으로 장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정당성을 건물 외관에 다색장식을 적용하였던 역사적인 선례를 참고함으로써 획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29년 히트르프(C.J.Hittorf)가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 외관에 적색과 황색, 청색, 녹색의 배합을 통해 고대 그리스에서 다색장식이 사용되었다는 이론의 발표는 그 당시 건축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쟈퍼도 그리스 건축에서 기둥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화려하게 채색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다색장식과 관련하여 그 당시 건축가들의 견해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로써 쟈퍼가 아테네의 헤파에스툼(Hephaestum)신전의 셀라월(cella wall)이 푸른색이었다고 주장한 반면에 샤우베르트(Schaubert)는 그것이 붉은 색이었다고 주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sup>7)</sup>

1830년대에 고딕주의자나 고전주의자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건축적 견해와 무관하게 일치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은 단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스의 신전들은 기본적으로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고딕 성당들은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고 상식이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맞물려 “白色의 古代”라는 思考方式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쟈퍼는 1832년 1월에 아테네로 들어가 신전에 대한 집중적인 考古

Architectural History, Der Still, Gottfried Semper:1803 1879, AD, 51을 참고.

2)Heinrich Wölfflin, Principles of Art History, Dover Pub., New York, 1950, p.59

3)G.ゼムハ-の被服論の形成過程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学会 計測係論文報告集, 昭和, 62年 9月, p.139

4)추상과 감흥 I, 입석재, 문예마당, 1995, p.32 재인용

5)Ibid, op. cit., p.35

6)G.ゼムハ-の被服論の形成過程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学会 計測係論文報告集, 昭和, 62年 9月, p.141

7)Peter Collins, Cha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McGill Univ. Press, Montreal, 1978, p.177

學的 조사를 하였다. 그 이후 돌아와 發刊한 대표적 논문이 “古代人の 多色建築, 彫刻에 관한 覺書”(Vorläufige Bemerkungen über emalte Architektur und Plastik bei den Aalen, 1834)<sup>8)</sup> <이하 覺書>이다. 켈퍼의 논문은 그 당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emalte Architektur und Plastik bei den Aalen, 1834<sup>9)</sup> <이하 覺書> 16세기 초부터 건축의 본질은 형태의 문제이고 건축에서의 채색은 시각적 측면에서 형태의 윤곽이 분산되기 쉬우므로 건물은 철저히 단색을 유지할 때 비로서 시각적인 완결성이 이루어진다는 시대적 건축관과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태리 바로크시대의 건축가들도 다양한 색의 대리석을 건물 외관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다만 건물에서 동일한 색에서 톤의 다양함은 구조적 이유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구조적 다색장식(Structural Polychromy)의 이론은 후에 존스(Owen Jones, 1807-1874)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색채는 형태발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사용이 되어,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을 구별시켜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sup>10)</sup>라고 말하면서 고대인들은 항상 형태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쪽으로 색채를 사용했으며, 또한 건물의 구조적 특징을 발생시키는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인(Egyptian)들은 기둥의 강도를 증가시켜 보기 위해 색채를 사용하였고, 무어인(Moorish)들은 기본적으로 몰당된 부분은 블루를 사용했고 뒤로 후퇴한 부분이나 표면으로 부터 움푹들어간 부분들은 노랑색, 돌출한 부분과 솟아오른 부분은 빨강색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퓨긴(A.W.N. Pugin, 1812-1852)도 장식의 이차원성과 구조와 장식의 통합을 주장하며 자신의 건축개념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건축재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재료가 갖는 본래의 所興性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재료가 갖는 본래의 색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여 건축에 있어서의 다색장식은 High Victoria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 3. 켈퍼(G. Semper)의 피복론의 형성과정

#### 3.1. 비교건축론 (Vergleichende Baulehre)

8) 자세한 내용은 G.셈퍼의 被服論의 形成過程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誌 報告集, 昭和 62年 9月, p.138 과 Joseph Rykwert, Gottfried Semper and Problem of Style, AD. 1981, pp. 11-15, 그리고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1750-1950, McGill Univ. Montreal, 1973, p.113 참조

9) 자세한 내용은 G.셈퍼의 被服論의 形成過程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誌 報告集, 昭和 62年 9月, p.138 과 Joseph Rykwert, Gottfried Semper and Problem of Style, AD. 1981, pp. 11-15, 그리고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1750-1950, McGill Univ. Montreal, 1973, p.113 참조

10) Christensen Ellen A, The Significance of Owen Jones's The Grammar of Ornament for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Ornament in Twentieth Century Europe and America, Univ. of Cincinnati, 1984, p.23

켈퍼(G.Semper)는 1803년 Hamburg에서 태어났다. 그의 건축은 그의 친구 쉰켈(Schinkel)의 浪漫的 古典主義와는 區別되며, 그의 주요한 建築理論은 <樣式>에 나타나고 있다. 裝飾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이론은 多色裝飾과 被服論을 들 수 있다. 특히 被服論은 그가 처음 원시건축의 초기 모델로 제시한 건축의 四要素와 比較建築論을 거쳐 완성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켈퍼는 1844년 8월에 드레스덴의 한 아카데미에서 1840년 이래 계속하던 건축론(Gebäudelehre)의 강의를 동명의 타이틀인 단행본으로 간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집필에 착수한 것은 1849년에 파리로의 망명 이후이다.<sup>11)</sup> 이러한 상황속에서 원고 집필이 불투명해졌던 켈퍼가 출판사와 재교섭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른 구상이 比較建築論이다. 比較建築論의 주요 내용은 켈퍼가 건축의 유형학적 분류를 위한 구상으로서 고대로부터 가능한 건축의 유형을 11개의 그룹으로 구별지어 형식화하는 작업이었다.<sup>12)</sup> 이를 위해 켈퍼는 공식적 분석의 틀로 접근하기 보다는 통사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하려 하고 있는데, 즉 하나의 건축형식에 따른 다른 건축형식과의 관계를 역사적 비교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비교형식이라고 하는 논문의 구성방법을 통해서 켈퍼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인류 초기의 근원적 상태인 初源의 狀態로 모아진다. 그는 전체의 기술을 住居(Wohngebäude)로 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거가 인류가 초기에 만든 건축의 영역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켈퍼는 建築의 原要素(Urelemente)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13)</sup>

#### 3.2. 건축의 4요소

켈퍼는 자연속에 숨어 있는 건축법칙적 공통요소로 지붕(Dach), 기초(Erdaufwurf), 울타리(Umfriedigung), 그리고 전체의 형태적 중심으로서의 화덕(Herd)을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四要素가 원시 주거형태를 구성하는 原要素로서 이후의 역사전개에서 주거를 포함한 모든 건축을 지배한다는 켈퍼의 구상은 比較建築論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이것은 건축의 기본행위인 주거행위를 자연속에 숨어 있는 생존이라는 공통법칙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가정을 생존의 전제조건인 불의 보호를 위한 축조행위(벽체와 지붕)라는 건축행위로 재구성한 것이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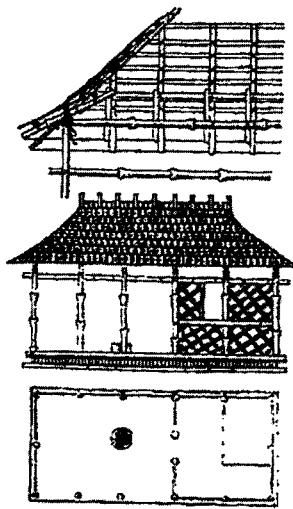
11) 켈퍼는 사상적으로 공화파였다. 드레스덴에서 시민혁명 봉기에 참가 한 켈퍼는 그 이후, 파리, 런던, 등 오랜 망명생활을 계속한다. 川向正人, G.셈퍼의 被服論의 形成過程について, 日本 建築學會誌 報告集, 第 379 號, 昭和 62年, p.138

12) ① 주거 ② 신전, 교회, 회교사원, 유대교회 ③ 학교, 도서관, 박물관, ④ 병원, 고아원, 여관 ⑤ 우체국, 시장, 증권거래소 ⑥ 시청, 의사당, 자료관 ⑦ 재판소, 경찰서, 감옥 ⑧ 요새, 병기창, 병사(兵舍), ⑨ 개선문, 기념비, 묘 ⑩극장, 콘서트홀 ⑪ 신시가지 계획 등을 들고 있다.

13) 1830年頃の新しい裝飾觀の生成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誌 報告集, 270 號, 昭和 61年 12月, p.124

14) 임석재, 추상과 감흥 I, 문예마당, 서울, 1995, p. 46 재인용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이 1851년초 런던 도착후 얼마 안되어서 간행된 建築의 四要素<sup>15)</sup>이다. 이 책은 그 내용에서 比較 建築論의 다이제스트판으로 볼 수 있다. 내용의 농축과 줄거리가 명확화된 결과, 建築의 四要素의 이념이 지극히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책에서 쾰퍼는 건축의 초기 원형적 형태를 구성하는 四要素를 지적한뒤 다시 각각의 요소에 원기술(Urtechniken) 즉, 원시상태의 인간이 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습득하고 있던 기술을 대응시킨다. 즉 쾰퍼는 예술의 기원(Anfaenge der Kunst)에 관한 연구에서 화덕이라는 原要素를 도예와 금속공예로, 기초는 排水, 治水技術과 같은 토목공사와 조적기술(Maurerarbeiten)로 발전되었고 지붕과 그 부속 부분은 목공으로 그리고 울타리는 벽면(Wand)을 마감하는 기술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적이나 돛자리와 같은 편직 기술의 발달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다.<sup>16)</sup>



<그림 1> 쾰퍼의 원시 오두막

쾰퍼가 논하고 있는 建築의 四要素중에서 특히 울타리에 관련된 부분이 被服論이라는 쾰퍼 나름의 장식관을 이루는 기본적인 골격으로 자리잡게 된다. 쾰퍼는 특히 建築의 四要素와 관련된 설명중 울타리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인간이 울타리를 만들때 나무가지를 짜는것과 같은 아주 원시상태인 종족에게도 가능한 행위로 부터 모피, 그리고 식물섬유로 編織物을 짠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편직된 것으로 햇볕이나 찬바람의 차단 혹은 공간의 울타리로 사용하는 것은 조적벽의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한다. 조적기술은 토목 기초공사의 영역이며 建築의 四要素로 말하면 기초에 속하는 것으로 후에 이것이 울타리의 영역안으로 들어왔다고 쾰

퍼는 말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편직기술과 조적기술이 울타리의 영역에 들어와 벽돌이나 잘라낸 돌을 사용하여 벽체(Mauer)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벽체의 표면 즉, 벽면에 특유의 장식 모양을 곁들여 시공 마감하는 기술은 그대로 보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벽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구조적으로 발달하지만 그 발달도 벽면장식의 기본적인 시각하에서 발전되어 진다는 것이다. 물론 벽면장식도 불변 일 수는 없지만 장식 그 자체가 갖는 연속성으로 인하여 켈터로서의 보호기능 또는 경제성이나 표현성등의 요구에 따라 스토크, 나무판, 테라코타, 대리석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게 되었다. 그 예는 앗시리아, 페루시아, 이집트, 그리스등 여러곳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따른 변형(Modification)에도 불구하고 인류 초기의 원시건축에서 부터 존재했던 벽면마감(Wandbereitung)과정중에 형성되었던 原像(Urbild) 즉 장식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내려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8)</sup>

쾰퍼는 당시 건축계의 논의의 표적이던 다색장식(Polychromy) 또한 이 벽면장식으로 부터 파생된 것이며, 그 자립적 존재는 이미 태고 때부터 인정되어왔고, 울타리라는 原要素는 공간경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장식형태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별의미가 없다<sup>19)</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假象(Schein)의 영역에 속하는것이고, 순수하게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같이, 쾰퍼가 언급하고 있는 建築의 四要素 중에서도 울타리는 다른 요소들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쾰퍼는 建築의 四要素중에서 울타리만을 별도로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덕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비트루비우스(Vitruvius)를 연상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sup>20)</sup> 화덕은 정착 거주하는 인간에게 집 혹은 신(神)을 모신 신전, 그리고 왕궁 더 나가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신을 모신 신전의 경우 화덕은 의식의 자리도 되지만 그러한 의식이 발전하면서 제단(祭壇)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建築의 四要素에서 쾰퍼는 울타리라는 原要素와 윤리성의 상징으로서의 화덕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갖는 근본적 개념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로지에(M.A.Laugier)의

17)Ibid., p.136

18)Ibid., p.139

19)Ibid., p.140

20)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야 가운데에서의 수렵, 전쟁, 방랑을 겪은 인류에게 있어 주거로서의 최초의 증거는, 인류가 파라다이스를 잃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화덕의 설치이며, 그곳에서 추위를 녹이고 먹을 것을 끓이고 익히기 위한 불을 지피는 일이었다. 생략

화덕 주위에 최초의 인간집단이 형성되며, 최초의 동맹이 결사되고, 원초적이고 또한 보장없는 종교개념이 그 주위에서 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사회의 모든 발전단계들 통해, 화덕은 항상 신성한 초점을 형성하고 그 주위에서 전체적인 질서를 이루게되고 조형되었던 것이다." Ibid., p.142

15)G. Semper; Die vier Elemente der Baukunst, ein Beitrag zur Vergleichenden Baukunde, Braunschweig, 1851 p.55, 와 G.セムパの建築の四要素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 計劃係 論文, 昭和 61년, p.125 참고

16)Ibid., p.135

원시오두막(Primitive Hut)처럼 인류에게 건축형성에 있어 네가지의 原要素를 갖는다는 가설의 제시이다. 이와 같이 몇가지의 原要素를 기본으로 전개하는 쟈퍼의 사상 저변에는 역사주의 시각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原形의 시각은 슬러 올라가면 비투르비우스나 로지에의 원시오두막과 맥을 같이 하면서 건축의 근본적 형성동인을 4가지 原要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 4. 쟈퍼의 피복론 (Bekleidungstheorie)에 나타나는 장식개념

쟁퍼의 피복론은 建築의 四要素의 전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중에서 울타리의 개념을 발전시켜 자신의 독특한 장식관인 피복론을 구성하고 있다. 피복론은 아래에 기술되는 4가지의 특징으로 파악될 수 있다.

##### 4.1. 상징적 형태 언어로서의 장식

쟁퍼는 建築의 四要素중 다색장식을 포함하여 울타리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울타리라는 原要素가 갖는 表層, 皮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층과 피막에 형성된 장식을 하나의 상징적인 형태 언어로서 주장하면서 이러한 장식구성을 위해 장식이 가지는 의미 즉, 형태언어로서의 장식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그것의 전파 및 재생을 다루는 이론으로 被服論이 성립되게 된다.<sup>21)</sup>

쟁퍼는 장식을 상징적 형태언어로서 파악하면서 장식이란 自然으로 부터 또한 사회, 역사로 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2)</sup> 왜냐하면 장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연과 역사를 포함하는 진실로 거대한 시-공간과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식의 形成動因을 자연의 유추에 기원을 둔 것과 사회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 예를 들면 사회질서와 같은 오래된 전통적 구조 유형(Konstruktionstypen)을 들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쟈퍼의 피복론이 갖는 장식개념의 중요한 부분은 구조형태 그 자체도 하나의 상징적 형태언어로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sup>24)</sup> 또한 原要素중의 하나인 지붕형태중에서 그리스 신전에 사용된 박공형태의 지붕형태도 일종의 상징적 형태언어의 예로서 언급하고 있

다.<sup>25)</sup> 쟈퍼가 말하고 있는 建築의 四要素중에서 기초는 기단이라는 건축요소로 발전되어 나가면서 신성한 건축물에만 쓰이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울타리는 그 표층과 피막에 여러가지 상징형태의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 측면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sup>26)</sup>고 언급하고 있다.

建築의 四要素는 그것에 대응하는 原要素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조적 형태가 생성되며 그러한 구조적 형태는 상징화를 거쳐 장식의 層, 被服으로 흡수 통합 되어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建築의 四要素에서 볼수 있었던 화덕과 울타리의 이원적 구조가 울타리에서 발전된 피복으로 일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4.2. 장식의 자립

쟁퍼는 장식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장식을 뮤즈(詩神)의 첫째 딸이라 언급하면서 건축에서의 장식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사실 장식이라는 개념이 독립적인 가치 결정요소로 분리되어 생각되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이고 이로 인해 계몽주의 이후의 건축이론가들은 명확하게 장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비트루비우스나 알베르티(L.B.Alberti, 1404-1472)같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전의 이론가들은 암시적으로 장식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이론화 하고 있다.<sup>27)</sup>

즉 계몽주의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건축에 있어 장식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형태요소에 꽃을 더해주는 것<sup>28)</sup>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즉 건물을 현실 이상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 장식이 건축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장(假裝, Maskieren) 시켜서는 안된다<sup>29)</sup>라는 것이 장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이와같은 장식관은 건축의 본질 즉, 건축의 기본요소와 관련해서 형태, 위치등이 결정되는 1차요소로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며 장식이 자립적인 요소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쟈퍼는 <覺書>에서 虛偽의 外觀은 부정하지만 장식하다라는 Schmücken<sup>30)</sup>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樣式>에 이르

21)G. Semper, Die vier Elemente der Baukunst, ein Beitrag zur Vergleichenden Baukunde, Braunschweig, 1851 p.59와 G. Semper의 建築の 四要素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係 論文報告集, 昭和 61年, p.128

22)川向正人, 裝飾論から工藝論へ, SD, 8709, p.101

23)Die vier Elemente der Baukunst, pp.54-55

24)구조형태의 상징화에 관해서는 1854년 런던에서 강의한 [건축적 상징에 관하여] 에서 나타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들면 화덕에서 발전한 제단은 문명과 종교의 중심이며 제단 모양의 형태를 지닌것은 성스러운 것으로 상징적으로 처리되게 된다. 제단 모양의 상징적인 형태라든가 기단 위에 건물 혹은 모뉴먼트가 형성됨으로서 그 신성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Ibid., pp.54 55

25)쟁퍼는 그리스에서는 박공이라는 지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神에게 바치는 공공적 구조물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었다고 언급하면서 건축적 형태에 내포된 사회가치나 전통적 의미까지도 일종의 상징적 형태 언어로서 장식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Ibid., p.56

26)G. Semper의 建築の 四要素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係 論文報告集, 昭和 61年, p.130

27)임석재, 추상과 감흥 I, 문예마당, 1995, 서울, p.31에서 재인용

28)R. Jensen, Ornamentalism, The New Decorativeness in Architecture, Crown Pub., New York., p.224

29)G. Semper의 被服論의 形成過程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 計劃係 論文報告集, 昭和, 62年 9月, p.140

30)Schmücken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Decoration이나 Ornament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단어이다. 독일공작 연맹의 토론회에서 그로스(Karl Gross)의 다음과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 “도대체 Schmück는 Ornament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 또한 “건물에 있어 제일 좋은 Schmück는 매스의 배치이다.”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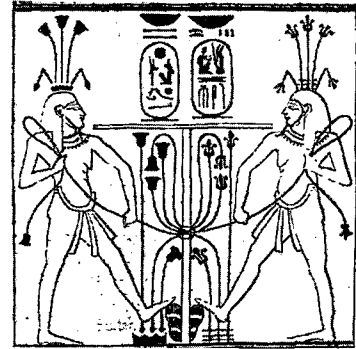
러서는 假裝시키는 것(Maskieren)것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게 된다. 즉 건축에 있어서 장식을 이용해 가장시키는 것은 허위는 아니라는 견해인 것이다. 그러면서 노출된 구조체(Rohe Konstruktion)는 건축이 아니며 그 구조체에 공동체의 의식이 스며들어 그 목적에 상응하는 장식이 행해짐으로서 비로서 진실한 건축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쥘페에 의하면 장식은 그 장식 그 자체의 역사, 본질, 타자와의 관계, 전체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존재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장식은 형태의 彫琢으로 발전되며 상징적인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또한 장식은 건축과정에서 주어진 장소의 위치와 형상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건축적 목적으로 부터도 자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장식자체가 의미를 갖는 상징으로서 다른 건축과 장소, 다른 민족의 결으로 이식(Verflazen)되어 질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4.3. 장식 목적의 사회성

사실 건축 양식사를 통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각각의 시대에 나타난 양식이 그 민족의 존재이유를 말하여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식에도 고유의 역사성이 담겨져 있어 장식을 독자의 상징형태로 구성하여 다른 민족의 장식과는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역사성과 민족구성원의 사회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쥘페에 의하면 원래 장식은 그 기원에 있어 공동체적이며 사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sup>31)</sup>라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 반해 휴브츠는 目測(Augenmass)과 같은 감각적 능력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계승되어져 내려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브츠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예술의 정신을 다른시대와 다른 장소에 옮겨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쥘페는 예술의 영역을 기술의 영역과 표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대를 초월해 전달가능한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장식형태와 같은 표현의 영역이라고 파악했다. 이와같은 민족 고유의 상징으로서의 장식은 그 사회나 민족구성원에 의해 계승되어진다. 言語로 파악한 裝飾 역시 개인의 취미, 감각을 超越하여 사회적, 공동체적 성격을 띠게 된다. 더우기 象徴的 言語로 抽象化된 裝飾은 사회민족에 의해 시대를 초월하여 계승되어 왔다. “이집트, 그리스 그외의 민족에 있어 고대로부터 傳承되어온 장식은 그 기원에서 부터 象徴的 意味를 띠고 있으며 이후 藝術家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번덕과 상상력을 소비하고 자유로히 취급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sup>32)</sup> 그렇기 때문에 建築의 表面에 層, 幕으로 나타난 형태언어가 민족사회와 결부되어 하나의 형태로 사용될 때 그 發生, 傳承, 利用의 범위가 건축에 한정된다고 생각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점으로 그는 실용예술이라는 틀속에서 건축을 공예품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파악했다. 상징언어는 공예로서 발생하여 건축속에 집대성되는 것이다.



<그림 2> 이집트의 평면장식

### 4.4. 장식 개개의 표현의 자유

이 시대 역사주의 건축가들은 필요로 하는 건축양식을 역사적 선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기본적인 골격이었고 골격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가에게 부분적인 자유가 주어졌다. 휴브츠가 반원아치의 양식을 주장한 것도 기본적인 골격은 고대 그리스 양식의 원본을 따르면서 부분의 자유로서 반원아치를 주장한 것이었다.

사실 여기서 부분은 장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 당시의 건축가들은 이 부분을 예술가의 취미나 감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배하는 객관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이원화된 주장이 대립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쥘페는 건축이 생활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놀이와 장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모든 예술이 탄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놀이와 장식이 한 몸이 된 상태를 건축에서 주장하였다. 그리고 쥘페가 자유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임과 동시에 예술의 탄생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로운 정신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는 고대 그리스 예술의 개화를 그 자유로운 민중의 존재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쥘페는 역사주의 건축가들이 지나간 시대나 다른 민족의 예술을 양식적으로 엄밀하게 모방하지만 시대의 요청을 수용하여 부분의 자유를 자유롭게 전개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sup>33)</sup> 즉 쥘페에게 있어 양식부흥이란 부분 즉 장식이라는 형태언어의 자유로운 조작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한 그가 이해하는 자유로운 장식적 조작은 객관적 법칙을 그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의 경우 장식

Banham, London, 1982, p.12

31) G. 쥘페의 被服論의 形成過程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 計劃係論文報告集, 昭和, 62年 9月, p.138

32) G. Semper, op. cit.

33) G. Semper: Die vier Elemente der Baukunst, ein Beitrag zur Vergleichenden Baukunde, Braunschweig, 1851 p.62

은 의식화, 개념화된 형태언어의 조작과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그 조작의 자유는 생활과 자연, 역사속에서 내포된 조형 법칙의 의식적, 개념적 파악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 5. 결론/ 19세기 새로운 장식관의 형성의미

근대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19세기의 서양 예술사상계는 다윈 된 예술사조가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이와 중에서도 건축계 일반에서 장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술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초기 근대건축에서의 장식이 국제주의 양식의 관점에서 이해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시각적 눈요기를 위한 표면조작의 개념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식은 미학적 가치체계와 상징적 형태언어로 이루어진 건축의 본질적인 1차 요소로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식에 있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19세기 들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논의의 토대를 가져온 것이 쟈퍼의 피복론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쟈퍼의 장식논의는 이 당시 건축이론가들에게 진정한 장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고 이어 리글과 보링거의 장식에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나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R. Banham, The First Machine Ag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83
2. P.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1750-1950, McGill-Queen' Univ., Press, Montreal, 1978
3. J. M. Manlar, The Interior Dimension,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2
4. R. Sensen & P. Conway, Crown Publishers, Inc., New York, 1992
5. G. Semper, Die vier Elemente der Baukunst, ein Beitrag zur Vergleichenden Baukunde, Braunschweig, 1851
6. Heirich Wöfflin, Dover Pub. New York. 1950
7. Gottfried Semper, Der Stil in den technischen und tektonischen Künsten oder Praktische Aesthetik, 2nd revised edition, F. Bruckmann Verlag, Munich, 1978.
8. G.셈퍼의 建築의 四要素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計劃係 論文報告集, 昭和 61年, 10月號
9. G.셈퍼의 被服論의 形成過程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計劃係 論文報告集, 昭和, 62年 9月號
10. 1830年頃の 新しい 裝飾觀の 生成について, 川向正人, 日本建築學會計劃係論文報告集, 昭和, 61年 12月號
11. 裝飾論から 工藝論へ, 川向正人, SD, 8709,
12. On the Methology of History of Architectural History, Der Still, Gottfried Semper:1803-1879, AD, 51
13. 임석재, 추상과 감흥 I, II, 문예마당, 서울, 1995

<접수 : 1998. 8. 10>